

## 교회소식

-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린 성도님들과, 믿음으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인도하며 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 오늘 예배는 소망 구역(김동수 장로)/ 은혜 구역(서영수 장로)과 하모니 구역(안상민 집사)이 참석합니다.
- 다음 주일부터 주일예배 참석을 두 구역에서 세 구역으로 확대합니다. 다음 주일(13일) 참석은 기찬 구역(기세학 집사), 소망/은혜 구역(김동수 장로, 서영수 장로), 주바라기/열매 구역(성창현 집사)입니다. 대면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정했던 최대 참석인원 30명 이내에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발열체크와 손 세정,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더욱 철저히 지켜서 서로를 배려하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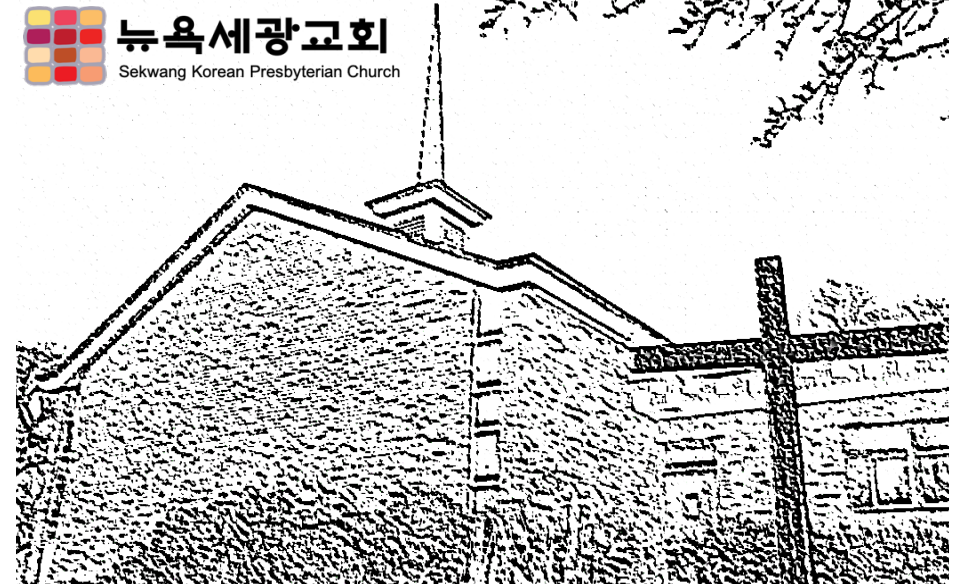
다음 주 출석: 기찬 구역, 소망/은혜 구역,, 주바라기/열매 구역  
다음 주 대표기도: 서영수 장로 (시 114)  
이번 주 친교:  
다음 주 친교:

## 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35호

2020년 9월 6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주일 예배	11am, 본당/YouTube	유치부	10am, Zoom
English Service	12pm, Zoom	유년부	10am, Zoom
새벽기도 (월-토)	6am, YouTube	중·고등부	12pm, Zoom

- YouTube: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82 8752 6478 (Sunday School) / 939 020 5125 (EM/Youth. PW: Sk)

## 성경공부 및 모임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Zoom  
구역 모임 TBA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 주일 예배

<오전11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Invocation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28장(통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대표기도 Prayer	시편 149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마태복음 9:35-10:15 Matthew 9:35-10:15
설교 Sermon	“추수할 일꾼” 이민영 목사
인사 및 광고 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559장(통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All Who Are Thirsty” 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Dan 3:13-18 Leader
Sermon	“Even if He Does Not?” Pastor Kim
Reflection / Prayer	Together
Lord's Prayer	Together

### 지난 주 주일 말씀

#### 추수할 것은 많되 마태복음 9:18-38

자기에게 찾아오는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익어 잘 난 것을 추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선 우리에게 남아있는 양들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의인들도 아니고, 고생하고 기진한 잃어버린 양들을 보시고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악이 관영하면 심판할 때가 이른 것처럼,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으면 구원하실 때입니다. 때가 차매 독생자를 보내셔서 잃은 양을 찾으실 때, 그 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미 죽은 딸,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할 부정한 여인,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귀신이 그 입을 막은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살아나고,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뵈고, 찬양하고 싶은 간구와 목마름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구원하신 것이 주님의 추수입니다.

추수의 열매는 사람이 만들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공활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열매로 주님께 드리게 하는 길은, 무슨 노력이나 자격보다도 간구와 믿음입니다. 오늘 구원 받은 사람들 이야기에는 유독 믿음이 강조됩니다. 이미 죽은 딸도 살려주실 줄, 차마 앞에서 부탁 못하지만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줄, 그 일을 다 행하실 줄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무덤 문을 깨시고, 죄와 사망의 중 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지만 순종으로 온전해지시고 의를 이루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패дем적으로 어렵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수록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공활히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믿음이 주님께 드러지고 주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리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열매이고 믿음이 추수하는 일이라면, 우리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추수의 일꾼 될 자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은 오지로, 힘든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 자신은 힘들지 않은 곳, 일할 수 있는 곳에 있으려 합니다. 그때까진 주님의 일을 못한다 합니다.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여기서 추수할 곳입니다. 주님이 공활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높고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열매를 받으시는 주님이 드러납니다.

